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71호 【루계 제 24584호】 주제 103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룡군중장 마원춘 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룡군중장 김정관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은점과학지구에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위성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인민군인들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 사이에 수십동에 천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위성원,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한 구획내 모든 건물

들의 골조공사와 내외부미장이 완공되었으며 장마철전에 외벽타일붙이기를 끝내고 내부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시며 공사장전역

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들의 외부를 여러가지 색타일로 구색이 맞게 처리하며 현판부들에 원형창문을 내주면 건물들의 모양이 멋있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택지구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사에 부엌발과 온실도 잘 꾸려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이 다그쳐지는데 맞게 지피식물과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구획도로와 걸음길조성을

계획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장마철전에 주변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호동과 9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내부구조가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 살림방들의 벽면과 바닥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가구들은 어떻게 비치하였는가를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과학자들에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라고, 그러자면 건축물마다에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주제적 건축미학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살림집 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건축물을 백점, 단점짜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필필 휘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곳곳에 세워진 호수성이 높은 직관물들, 힘있는 방송선전으로 들쭉이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는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진리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당창건 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별공사과제를 일제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특군중장 마원춘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특군중장 김정관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9월 룡라도에 자리잡고있는 5월1일경기장을 돌아보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개건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긴 건설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



로 개건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총공사량의 70%를 해제기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장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개건을 다그치

는데서 나서는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맡은 대상들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5월1일경기장은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하자면 주제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건에서 힘을 넣어야 할 대상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해주시면서 특히 관람석, 경기장바닥, 각종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야 5월1일경기장을 주제적인 건축술이 집대성된 체육시설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번째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에서 설계 뿐 아니라 시공도 주제가 명백히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판람적자와 판람을, 계단부분의 색깔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경기장의 면모가 이제로워질것이라고 하시였다.

5월1일경기장을 웅장화하려고 산뜻하면서도 깨끗하게 개건하자면 건설자들이 모든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랑심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1일 경기장개건을 위해 당장건기념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공사를 제기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 소장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차이까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 소장이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대표단 단장인 유리 골라진 부소장이 1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보도망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명도자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무술이 울창한 섬을 바라보시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방어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음에 대한 김정은명도자의 유혹을 철저히 판철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이께서는 백두산전세위인들의 현지지도포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으며 방어의 전투무기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군인회관, 병사원, 무난담담새은실, 버섯재배장, 화초온실을 비롯한 후방경리시설들과 직속중대들을 돌아보시였다. 이곳 부대는 조선로동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단위,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진형단위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중국의 인민망, 동방망,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 엔데웨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결림신문》, 로씨야의 신문 《프루드》, 《즈베즈다》TV방송, 마이코방송, 인터넷 통신들인 로스발트, 루스카야 슬루츠히바 노보소프예이, 가제마, 루, 펜타, 루, 인터넷TV 《미르 24》, 이

란신문 《이란 뉴스》, 타이신문 《앙코르 포스트》, 영국의 BBC방송, 신문들인 《인디펜던트》, 《가디언》,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전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발신문 《아르판》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게재하시였다. 중국, 네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1호

주제 103(2014)년 6월 1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를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최영건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임명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명도자

국제사회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명도자로서 조선로동당을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명도자라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이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함으로써 당시사상리론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영원한 승리의 기수로 되고있다. 로씨야신문 《야프리오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명도자께서는 장구한 기간

국제사회가 격찬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면서 당건설위업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이께서는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은 조선로동당을 투철한 사상적전일체로,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으로 발전시키신것이다. 김일명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이 강화발전되도록 하시였다. 또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을 시종일관 당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시였다. 배인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일명도자께서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명도자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평의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들을 위하여 복부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전투력을 지닌 불멸의 당으로 다지고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이다. 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결출한 명도자,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루민족독립운동은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기치를 확고히 고수해나가는 백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이께서는 근 반세기동안 조선로동당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 혁명과 건

설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의 당건설업적에 대하여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하기에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세계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공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인류사에 특기할 날이다. 만만 마트 타르모출판사 총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명도자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불멸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강력한 당으로 위용발전시켰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 사설

#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가물피해를 철저히 극복하고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

지금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페넨에 보기 드문 가물현상이 계속되고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고온현상까지 나타나고있으며 저수지와 강하천의 물량이 줄어들어 논밭관수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가물피해를 철저히 극복하고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하였습니다.》

##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2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사회주의선량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투가, 부위원장으로 로씨야군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메디우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2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사회주의선량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투가, 부위원장으로 로씨야군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메디우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2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사회주의선량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투가, 부위원장으로 로씨야군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메디우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2일에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 사회주의선량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투가, 부위원장으로 로씨야군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메디우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회고모임, 사진, 도서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경사로운 6월의 명절에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려 퍼진다

6월의 푸르른 하늘  
가에 우리 당마크가  
찬연히 빛난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 우리 당마크를 우러르며 당창건 기념탑 앞에서

조선로동당마크를 우러러 천만  
의 불타는 심장들이 하나가 되  
여 세차게 고동친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 한 붉은  
당기와 더불어 언제나 천만군민  
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어  
이 땅 어디서나 보이는 불멸의  
기념탑으로 다함없는 충성과  
홍도의 대화가 끊이지 끊이지  
흐른다.

준엄높은 당,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를 가진 무한한 행복과  
금지감으로 하여 가슴높이  
산악도 떠올릴 힘과 용기에  
넘치는 력사의 기념비-당창건  
기념탑!  
푸치아름다운 동평양지구에  
당창건기념탑이 시대의 기념비  
적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선지  
도 20년째일이 흘렀다.

리소 강사 유혜성동무의 말이  
였다.  
당창건기념탑앞 교양마당으  
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있었다.  
교양마당을 지나 당창건기념  
탑을 우러르는 그들모두의 얼굴  
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을 주체  
형의 혁명적당, 선군혁명의  
당인 영리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끊이지 않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당창건기념탑을 찾은 때  
다 더욱 확신하게 되는것이 있  
습니다.  
그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승고한 뜻이 어려있고 우리  
인민의 품과 리상이 비껴있는  
저 당마크가 새겨져있고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나  
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  
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꾼만이 아닌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신념의  
목소리이다.

대원수님들께서 오늘도 태양의  
미소를 환히 지으시고 우리 군  
대와 인민을 광명한 미래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력사의 언  
덕을 우러르느라니 조선로동당  
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  
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을 우러러  
는 나라 천만군민이 터치는 환  
희와 격정의 환호성이 귀천에  
들려오는듯싶었다.

## 고마워라 어머니당의 사랑

김정  
숙 평양방직공  
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창건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막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실려 당창건기념탑을 찾  
았다.

그 날 당창건기념탑은 선군  
혁명의 항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  
의 빛나는 상징으로,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펼치는 시대의 기념비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자리잡게 되  
었다.  
《당창건기념탑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대우기 우리 당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뜻깊은 날들을 맞을  
때마다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  
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  
들이 당창건기념탑을 찾은 합  
니다.

돌이켜보면 《E. C》로부터  
시작된 장구한 우리 당건설력사  
에서 주제 53(1964)년  
6월 19일은 대를 이어 백두  
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나  
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  
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꾼만이 아닌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신념의  
목소리이다.  
조선로동당이야말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는 위대한 어머니, 삶의 은인  
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당을 따라 나가는 길에 최후  
승리가 있다는것을 자기의 실생  
활을 통하여 체험한 우리 군대  
와 인민이 아니던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이 대를 이어 승승장구하여  
올수 있는 근본비결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당창건기념탑과 마주  
한 만수대인덕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위  
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오늘도 태양의  
미소를 환히 지으시고 우리 군  
대와 인민을 광명한 미래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력사의 언  
덕을 우러르느라니 조선로동당  
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  
시켜오신 절세위인들을 우러러  
는 나라 천만군민이 터치는 환  
희와 격정의 환호성이 귀천에  
들려오는듯싶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당창건기  
념탑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은  
경속의 춤바다로 설레이기 시작  
하였다.  
명절웃자림으로 단장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경  
쾌한 노래소리에 맞추어 흥겨운  
춤을 펼쳐놓았다. 명절분위기  
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당창건  
기념탑앞 교양마당은 절세위인들  
에 대한 다함없는 숭모와 영광의  
경모의 정,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과 칭송의 열기로  
새차게 끓어올랐다.  
경사로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  
하고있는 그들의 얼굴마다에서  
우리는 위움을 수 있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이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온 나라 천만군민의  
불타는 신념과 맹세를!  
본사기자 리 훈 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창건일체의 위력으로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막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에 실려 당창건기념탑을 찾  
았다.

속 평양방직공  
장에서  
화동무의 심장의 웨칭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며  
로동자합숙건설문제부터 의논  
해주시었다. 오늘은 세상에 없  
는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을  
대동강기슭에 일떠세워주시어  
행복을 행복을 덧쌓아주시었으  
니 이들 공장종업원들의 가슴가  
슴은 충성과 보답의 열정으로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일떠마다에서 집단적경쟁열  
이 맹렬히 불타는 속에 2년분  
계획완수자, 년간계획완수자대  
열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  
음, 백걸음으로 앞서나가는 혁  
신자대오속에는 직조종합직장  
1직조직장 직조공들만이 서있  
지 않다. 방직종합직장과 화학  
섬유방직종합직장의 로동계급  
도 실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창  
조하며 대오의 앞장에서 준비타  
고 내달리고있다. 아니 온 공장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 배풀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  
는 일념안고 충정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방  
직공들의 공로를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며 최상의 영광을 안  
겨주시었으니 우리처럼 행복한  
너생들이 또 어디 있었습니  
까.》 이것은 그들의 영광을 가  
슴에 안고 오늘도 직조종합직장  
1직조직장에서 변함없이 기  
대를 잡고 새 세대 방직공들을  
위훈창조자로 떠밀어주고있는  
1970년대의 로력영웅 전  
수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습니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방  
직공들의 공로를 그처럼 높이  
평가해주시며 최상의 영광을 안  
겨주시었으니 우리처럼 행복한  
너생들이 또 어디 있었습니  
까.》 이것은 그들의 영광을 가  
슴에 안고 오늘도 직조종합직장  
1직조직장에서 변함없이 기  
대를 잡고 새 세대 방직공들을  
위훈창조자로 떠밀어주고있는  
1970년대의 로력영웅 전  
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표기  
되어있지만 마치도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일인 10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참전지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  
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  
니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맞이하는  
6월 19일을 가장 뜻깊은 날  
들중의 하나로 경축하고있다.  
올해에도 달력에  
는 이날이 보통날  
과 다름없이

#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청년예술선전대 공연이 1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기악과 노래 《높이 날라라 우리의 당기》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혼성5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혼성2중창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대회사와 노래 《대를 이어 충성을 다 하렵니다》, 극제당 《청춘의 이름》, 어은금독주와 방창 《젊음은 금행렬차》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비범한 예술적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주체혁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으로 창조해나가는 당, 가장 권위있고 창조도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험불멸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남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남성4중창 《인민의 환희》를 비롯한 종목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대대로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 등의 곡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우리 당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수십 성장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로속하고 세련된 조선헌명의 참모부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일번영을 이룩해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기에 빛날 업적을 승업한 선물을 담아 형성하였다. 사상의 위력, 단결과 사랑의

힘으로 성스러운 붉은 기록에 승리만을 새겨가는 위대한 당을 따라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받지는 인민의 한없는 영광과 행복이 곡목들마에 차려진것이다. 한없이 소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담은 관현악 《조국찬가》의 장중한 선율이 장대를 격동시켰다. 출연자들은 백두산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수령복, 태양복, 당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배합관현악의 풍부한 울림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받들어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가 반영된 음악회는 관현악곡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끝났다. 음악회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걸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청년예술선전대 공연이 1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수령복, 당복을 노래하며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해발봉을 전세계를 뛰어 뛰어 강성할 때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쳐가는 청년전위들의 열정과 기개를 보여 주는 여성4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남성기타5명창 《우리 앞날 밝다》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에 청춘의 향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조선청년

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세 세대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을 반영한 공연은 소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르다》로 끝났다. 관람자들은 우리의 운명이 시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걸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역세계 걸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아버진 김정일대원수님 등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에서 그들은 우리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뜻대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문으로 내세워주시고 뜨거우신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환희의 춤물결을 일으켜 나갔다.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예를 높이 모시어 대대로

###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접견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18일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서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께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담화를 부탁하였다. 그는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 하메즈 알 아사드 대통령각하와 함께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지적관계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 수리아에서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고위급대표단들을 편이 보내주신것은 수리아인민의 정의 위업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앞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며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를 보낼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는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밑에 가까운 앞날에 조선의 통일이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는 수리아 내각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인사를 비롯한 관계인사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 수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와일 나드르 알 할리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 수상이 18일 이 나라를 방문한 리수용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수리아의 관계인사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서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그는 조선정부가 언제나 이 나라를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편에서 견고한 입장을 취해오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내놓으신 평화제 통일방안은 나

그는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 건강국가를 건설하고 조선인민은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의무상과 할리드 알 무알림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인사의 회담이 있었다.

### 레바논 공화국 림시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레바논공화국 림시대통령인 람판 샬람수상이 17일 이 나라를 방문한 리수용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판제인사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서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림시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신과 레바논은 정서와 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으며 담화를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정부가 언제나 이 나라를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편에서 견고한 입장을 취해오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내놓으신 평화제 통일방안은 나

의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방도로 된다고 하면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정부를 지지한다고 친선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가 협력가능성 있는 동성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날 우리 대표단은 레바논공화국의 정, 외무 및 이주인사 대리를 각각 만났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수리아 도착

리수용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

표단이 17일 수리아아랍공화국에 도착하였다. 수리아 외무 및 이주

민성 1부상, 대통령부 의례국장 등 관계인사들이 맞이하였다.

## 만수대 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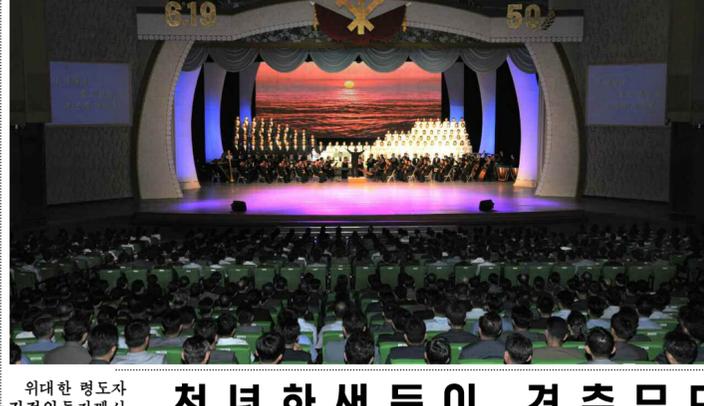
### 《당을 따라 일편단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당을 따라 일편단심》이 19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공헌하고 있는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피아노독주와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노래편곡 《당중앙의 불빛》,

《그 품은 하나》, 《어머니다당의 품》, 남성독창과 여성합창 《달라라 선군길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반세기 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주체의 당건설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초강

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로동당시대의 번영기를 열어오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는 크나큰 경이로 휩싸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이 땅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있음을 노래한 남성4중창 《내 심장의 목소리》, 여성6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여성2중창 《바다 만풍가》, 여성합창 《황금나무 늙금나무 산에 심

었소》, 무용 《사랑넘친 승마장》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인민이 누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아오시기 위해 위대한 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라나게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을 반영한 남성4중창 《내 심장의 목소리》, 여성6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여성2중창 《바다 만풍가》, 여성합창 《황금나무 늙금나무 산에 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9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아버진 김정일대원수님 등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에서 그들은 우리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뜻대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문으로 내세워주시고 뜨거우신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환희의 춤물결을 일으켜 나갔다.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체의 당건설위업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예를 높이 모시어 대대로

《인민의 나라》,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의 노래선율이 흥겹게 출가락을 맞추어나갔다. 청춘의 방망으로 찬양된 무도회분위기는 《홀라라》, 《전선행렬차》 등의 경쾌한 노래들이 편이 울리며 더욱 고조되었다. 어머니당을 따르는 하나의 지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철물같이 뭉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갈 철석의 신념이 어려웠다. 이날 각 도소재지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향으로 박자를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물결을 이어나가는 참가자들의 열광마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철물같이 뭉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갈 철석의 신념이 어려웠다. 이날 각 도소재지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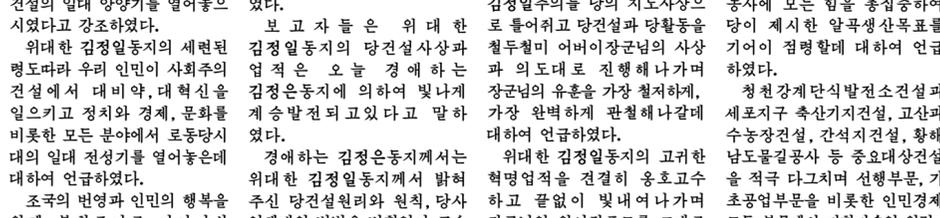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장계층 근로자들이 보고대회 및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높이 모신 50돐은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년에 빛나는 중대한 계기로, 단계를 넘어서는 양상을 띠고 과시하는 크나큰 경사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성을 실현하려는 전진미담의 사회주의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오신 혁명의 정치원로이시며 걸출한 통령도자이시리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계정치사에는 이름없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같이 그렇듯 장구하고 영광스러운 혁명명대사를 수행하는 두리에 사상의적적으로, 도덕적적으로 봉헌 불꽃의 대오로 키우시였으며 인민정치, 광복정치를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어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구한 반세기 이래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계적인 전변을 안아오시고 자주시대의 발전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당건설리론과 원칙, 당사업제와 방법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가것을 당건설의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전당에 위대한 장군님신인민군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해나가도록 하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령도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연대가 새로 융성고향의 경이로 올라섰다고 말하였다.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에 새겨져 일어나고 로동당의 부흥을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제, 령도체제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

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 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사업을 사람과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시켰으며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강요점을 열어놓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고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이어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헌신지도 강행군길에서 강선과 함남을 비롯한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오의 불길의 편이여 타올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민대동의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있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졌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혁명대오를 수행하는 두리에 사상의적적으로, 도덕적적으로 봉헌 불꽃의 대오로 키우시였으며 인민정치, 광복정치를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를 비롯한 력사적인 로작들에서 밝혀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서 혁신의 불꽃을 높이 쫓아들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태도를 발표하신 50돐이 된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이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당이 제시한 압록강산복록을 거머쥐어 결정하여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강계단식발전조선건설과 세조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 수놓강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 등 중요대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위력, 자력갱생의 본래로 생산증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성이 어려고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비껴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백두대지로부터 분출된마음을 이르기까지 온 나라 모든 곳에서 로동당만소리,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9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향으로 박자를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물결을 이어나가는 참가자들의 열광마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두리에 철물같이 뭉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갈 철석의 신념이 어려웠다. 이날 각 도소재지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 경축의 환희되어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환호성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 백두산 밀영 고향집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만한 이즈음 백두산 밀영고향집 트랙은 수많은 당사자들이 붐비고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분담보를 마련해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장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심을 안고 온 나라 방방곡

## 불멸의 당건설업적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아 백두산기슭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의 그 어디서나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분위기가 차려졌다.

6월 19일 마침내 그의 충정이 담긴 불멸의 꽃은 백두산 밀영고향집 트랙에 활짝 피어나 찾아오는 당사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었다.

꽃잎은 이날 우리의 만난 광강도당위원회 부부장 김명숙동무는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백두산기슭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대한 거점으로 전민시켜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성있게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혁명적열의는 여기 정일봉기에서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 대새기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 불타는 맹세는 도에술단예술인들이 출현한 경축공연 《만대에 빛나라 김정일시대》에서도 뜨겁게 분출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끓어오른 이날 저녁 시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가 진행되었다.

환희와 격정에 젖어 꽃잎은 이날을 경축하는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군혁명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서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특파기자 김천일

2.8 직동청년탄광에서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위인칭송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청년동맹원들과 직맹원들은 경축모임을 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과 조국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토로하면서 석탄생선의 자랑한 성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꽃잎은 이날 탄광의 일군들과 광, 직장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같이 모서져있는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을 드리고 일제히 생산전투에 들어갔다.

1경 체탄4중대, 2경 체탄3중대, 3경 체탄3중대, 청년1.3중대, 6경 체탄3중대를 비롯한 10여개 단위에서 일석탄생선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청년경리서철, 문지권출진소대, 6경 김철학출진소대, 8경 백남식출진소대를 비롯한 여러 출진소대에서 하루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탄광에서는 뜻깊은 하루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로력적성파로 빛내신 자랑을 안고 경축무대를 펼치고 흥겨운 춤판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로 이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를 안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갈 결의를 넘쳐냈다.

특파기자 리혁철



평양시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사리원시의 인민들은 장군님의 거룩한 명도업적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더욱 빛내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이른아침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사리원시민들이 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표장을 수여받은 처녀방직공의 가슴에도 인민군대원호사열을 잘하여 아버지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나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소년단원의 얼굴에도 한없는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린 미려한 동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마음도 그리고 애성장발전소 건설자들의 마음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실 일념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새겨져있는 금강혁명동맹장도 경축분위기로 한껏 끓어번졌다.

리문화회관에서는 군기동에 술선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새겨진 금강리를 사회주의선진국으로 꾸려주시고 농업생선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격정넘쳐 노래하는 예술선대원들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눈물을 적시는 농장원들, 공연의 마지막순서로 농장의 일군들이 무대에 올라 예술선대원들과 함께 팔을 흔들며 《우리는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고 관중이 함창으로 화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끓어오른 이날 저녁 시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환희와 격정에 젖어 꽃잎은 이날을 경축하는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군혁명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서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특파기자 김천일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새겨져있는 금강혁명동맹장도 경축분위기로 한껏 끓어번졌다.

리문화회관에서는 군기동에 술선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새겨진 금강리를 사회주의선진국으로 꾸려주시고 농업생선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격정넘쳐 노래하는 예술선대원들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눈물을 적시는 농장원들, 공연의 마지막순서로 농장의 일군들이 무대에 올라 예술선대원들과 함께 팔을 흔들며 《우리는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고 관중이 함창으로 화답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끓어오른 이날 저녁 시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환희와 격정에 젖어 꽃잎은 이날을 경축하는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군혁명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서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특파기자 김천일

2.8 직동청년탄광에서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위인칭송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청년동맹원들과 직맹원들은 경축모임을 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과 조국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토로하면서 석탄생선의 자랑한 성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꽃잎은 이날 탄광의 일군들과 광, 직장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같이 모서져있는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을 드리고 일제히 생산전투에 들어갔다.

1경 체탄4중대, 2경 체탄3중대, 3경 체탄3중대, 청년1.3중대, 6경 체탄3중대를 비롯한 10여개 단위에서 일석탄생선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청년경리서철, 문지권출진소대, 6경 김철학출진소대, 8경 백남식출진소대를 비롯한 여러 출진소대에서 하루계획을 1.3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탄광에서는 뜻깊은 하루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로력적성파로 빛내신 자랑을 안고 경축무대를 펼치고 흥겨운 춤판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로 이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를 안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생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갈 결의를 넘쳐냈다.

특파기자 리혁철

7월 1일 10월 10일 1945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7일

## 함남의 불길놀이 당을 따라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아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날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반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제 100(2011)년 10월 10일 함경남도에 찾아오시어 함남의 불길놀이를 지켜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러머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체육경기를 진행하면서 뜻깊은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함흥대극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합

경남도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었다.

도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독창과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바이올린독주와 합창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와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한평생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전진길과 공경길, 농장길을 걸고 또 걸으시며 불탄불꽃의 로고를 마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추추지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도문화회관에서 도예술선전대의 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와 함흥시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예술소품공연과 체육경기, 경축모임 등을 조직하였다.

함흥비료련합기업소와 함흥모방직공장, 함흥편직공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현지지도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다양한 예술소품공연과 체육경기로 이날을 뜻깊게 보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함흥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예술소품공연에는 실사와 합창 《인민의 환희》, 이야기와 노래 《백두정상의 발걸음 따라 앞으로》 등이 울렸다. 기업소에서는 직장별로 종업원들이 배구와 풍구, 탁구와 윷놀이 등을 하면서 이날을 기쁨속에 보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는 혁명사적비교양마당앞에서 특색있는 예술소품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각 직장의 조급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 시 《어머

니》 등 다채로운 종목들 가지고 출연하여 백두산전설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길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함흥편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주제 100(2011)년 12월 초 생생길을 헤치며 공장을 마지막으로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돌아보며 이날을 뜻깊게 보냈다.

이날을 경축하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함남의 불길놀이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경계장군건설과 인민생활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 경축열의로 끓어번진 배구경기

함해남도물길건설에 동원된 함경북도연천군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아 함해남도 물길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서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가다듬었다.

청진시 송평구역대대의 선수들이 나왔다.

파연 오늘의 배구경기에서 어느 대대가 이길것인가.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무산군대의 대대장 리명주, 정지희도원 김철남동무들이 잘 짜인 결합으로 상대팀에 연속 골타를 들어냈다. 청진시 송평구역대팀도 막기와 강한 체력으로 자기들의 강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승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6월의 뜻깊은 이날을 경축한 이 기쁨, 이 자랑을 더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가려는 불타는 맹세가 리명주도원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졌다.

특파기자 리승철

경축열의로 끓어번진 배구경기. 이번 배구경기. 장,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있었다. 응원열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6월의 뜻깊은 이날을 경축한 이 기쁨, 이 자랑을 더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가려는 불타는 맹세가 리명주도원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졌다.

특파기자 리승철

##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유리 골라진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최고검찰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여러인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끈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에 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들에게 큰 유산을 남기시였다.

그이는 로조선전판개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결연한 위인이다.

이밖에 손님들은 주체사상과 국제친선전람관, 조해방전정승기념관, 미림음악구락부 등을 참관하였다.

제16차 아시아청년특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제16차 아시아청년특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9일 귀국하였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대륙에서 진행된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34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 선수 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성미선수는 완강한 투지와 높은 인내력을 발휘하여 여자 1500m달리기경기에서 제1위를 쟁취하였다.

여자 3000m장애물달리기 경기에서 주옥명선수가 2위를, 여자 5000m달리기경기과 여자 3000m장애물달리기경기에서 김지향, 장은화선수들이 각각 3위를 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영훈체육장, 판계부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인양하면서 경기성적을 축하해주었다.

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회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극악한 매국노 문창극놈에 대한 괴뢰국무총리 임명놀음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박근혜와 괴뢰부수세당이 극악한 매국노 괴뢰국무총리로 내정된것과 관련하여 1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67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극악한 매국노 문창극놈이 괴뢰국무총리로 내정된것과 관련하여 경악과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문창극놈은 말하면 지난 시기 괴뢰들의 3대보수론의 하나인 《중양보》를 비롯한 보수인론에서 오래동안 클러미면서 반민족적독설로 악명을 떨친 극악무도한 사대매국노, 대결판정사이다.

놈은 일제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칭찬하며 우리 녀성들을 세노로 만든 일제의 죄행에 대해 《사과반을 필요가 없다.》고 망발하고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두둔해왔고 자위 우러 민족을 《에르》로 자립성이 부족하며 남에게 신세를 지려는 우둔자를 가지고있다.》고 악담하였다.

그런가 하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미국의 부친전쟁책동과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극구 찬양하였을뿐 아니라 《전쟁불사론》과 남조선《핵무장론》, 《북체제전복론》을 떠들어대며 강요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참수없이 중상모독하였다.

문창극놈이 내뱉은 독설들은 락대 그 어느 역적배도 입밖에서 못한 반민족적악담의 극치이다.

일제의 특대형반민족적범죄를 감싸고 민족을 모독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문창극놈과 같은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역적배, 동족대결의 불망나니는 어디에 있다.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가져다준 40여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근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느님의 뜻》이요 뭐요 하면서 전조선민족을 참수없이 모독한 그 한가지 죄악만으로도 문창극놈은 통치적참을 해야 할 특등중범죄자이다.

헤아려 남조선의 야망들과 시민화단체,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물론 여당안에서까지 문창극놈을 제2의 리완용, 《희세의 매국노》, 《민족의 수치》, 《일본수호노라 가라.》 등으로 격모를 넘쳐 규탄되고있으며 미국, 중국, 주 주변나라들도 문창극놈의 망발들을 대서특필하면서 비난조소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그 심복인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비롯한 괴뢰부수세당은 문창극놈을 극구 비호두둔하면서 총리임명을 어떻게 하나 강행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남조선민족과 내외연에 대한 참수없는 도전이며 정의와 망심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다.

남조선정치가 얼마나 썩었고 정치할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인간오작품, 천하무적이 될 총리자리에 올려놓으려 하겠는가.

오늘의 사태는 박근혜가 그 무슨 《국가개조》, 《인민공화》를 무마하고 통치위기를 모면하며 《유신》의 부활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히 보여준다.

지금 내외연과 남조선인민이 문창극과 같은 천하오작품 총리자리에 올려놓으면 남조선

이 더욱 사람 못살 암흑천지가 되고 부남관계가 보다 심각한 파국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우려와 격분을 표시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창극과 같은자가 총리가 되면 남조선인민들에게 차제될것이란 더 큰 재앙과 수치, 불행밖에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문창극놈에 대한 임명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문창극놈과 같은 극악한 매국노, 반역자는 후보사퇴가 아니라 심판대에 끌어내어 단호히 끌어내려야 한다.

박근혜가 앞단의 운명과 북남관계를 조급이러도 생각한다면 문창극놈에 대한 《국무총리》인명놀음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파멸적후과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통일운동의 강화를 주장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민주로총, 《통일광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12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적극 펴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족분열 55년만에 우리 민족끼리 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조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측의 련합계단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합계단의 공동성명을 인정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성을 분명히 밝혀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그 열기를 불려나가기 위해 로동자들과 통일선봉대를 구성하여 투쟁을 펴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